

“장사하기 힘들다”...채솟값 급등에 자영업자 ‘시름’

배추·양배추값 전년 대비 2배 올라 “3일새 1000원 올라” 영세상인 한숨 생산자물가도 4개월 연속 상승세 농축산물 외 도시가스 등도 인상

“매일 쓰는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 힘에 부치네요. 나아질 거란 생각은 들지 않고 그냥 조금 벌 수밖에 없죠.”

광주 동구에서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3)씨는 요즘 들어 부쩍 오른 양배추값에 자포자기 상태다. 모든 게 오른 상황에서 토스트에 필수적인 양배추마저 며칠 새 1000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양배추와 계란은 본사에서 공급받고 있지 않아 직접 구매한다. 최근 공급장을 찾아 양배추 한 통을 썰어놓은 상품을 구매했는데 원래 7900원하던 것이 3일 만에 8900원이 돼 있었다”며 “안 그래도 도시가스비는 물론 배달 수수료, 중개비 등이 너무 올라 힘든데 양배추까지 오르기 착잡하다”고 한숨을 내뿜었다.



배추, 양배추 가격이 한달 새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시

배추, 양배추 등 외식업장에서 많이 쓰이는 채소류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른바 ‘사장님 물가’라고 불리는 생산자물가도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영세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

주·전남 농산물정보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양동시장 배추 1포기 가격은 6760원으로 2주 전(6000원)보다 12.7% 올랐다. 1년 전 4230원과 비교해 59.8% 급등했다. 양배추 가격은 같은 날 기준 6430원으로 2주 전(5330원)보다 20.6%

상승했으며 1년 전 4000원과 비교해 무려 60.8% 비싸졌다.

외식업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도매가 역시 크게 올랐다. 이날 기준 광주 지역 배추 상품 10kg 가격은 2만2000원으로 전월 같은 날 1만4326원과 비교해 한달 새 7674원이나 올랐다. 전년(1만905원) 대비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양배추 상품 8kg 가격은 2만1300원으로 전월 1만3700원 보다 55.47% 비싸졌다. 1년 전(9424원)과 비교해 126.02% 오르며 큰 상승폭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선행 지표라 불리는 생산자물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46(2015년 100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올랐다. 지난해 12월(0.1%)부터 상승 전환된 후 올해 1월(0.5%), 2월(0.3%)로 연속 상승 중이다. 생산자물가는 품목마다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품목별로 농림수산물 지수가 154.20을 기록, 전월 대비 1.3% 오르며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으며 농산물 0.4%, 축산물 2.0%, 수산물 1.6%로 모두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배추가 전월 대비 36.0%, 양파가 18.9% 올랐다. 돼지고기는 11.9%, 김은 19.8%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사과는 135.8%, 양배추는 51.6%로 비싸졌다.

농림수산물 외에도 공산품은 전월 대비 0.3% 올랐으며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가 2.6% 오르는 등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서비스는 운송서비스가 0.5%로 하락했으나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3%, 금융및보험서비스가 0.6% 올라 전월과 보합세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는 중동지역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라 상승곡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유성욱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농림수산물이 상승률이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최근 유가 상승세가 석유화학 일부에 반영됐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가정의 달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정관장 매장에서는 5월 가정의 달 프로모션을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들이 많은 5월을 앞두고 해당 매장에서는 인기상품인 홍삼정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천녹정을 포함해 품목별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정관장 멤버십 회원 대상 4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 포인트 적립 및 브랜드 감사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과 함께 24일부터 5월7일까지는 구매금액대별로 5%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금호타이어, 美 JD파워 타이어 만족도 3위 달성

금호타이어가 미국 JD파워에서 실시한 승용차 신차용 타이어(OE, Original Equipment)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톱 3에 이름을 올렸다.

JD 파워(J.D. POWER)는 1968년 설립된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이자 마케팅 정보 회사로서 매년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데이터 및 분석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JD 파워가 실시한 타이어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글로벌 18개 타이어 브랜드를 대상으로 타이어의 승차감, 견인력 및 핸들링, 내구성, 외관 등 4가지 영역에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

월까지 2022년~2023년 모델 차량 소유자 3만141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일반 승용차 분야에서 금호타이어가 799점(전체 평균 797점)을 차지하며 3위를 달성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진출 지역 중 최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에서 지난해 전년 대비 9% 상승한 1조261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호타이어 북미시장은 제품 품질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 물류 서비스 강화, 수익성 개선 등 총 4가지 영역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기아, 브랜드 첫 픽업 ‘더 기아 타스만’ 전용 위장막 공개

호주·뉴질랜드 아티스트와 협업

기아가 23일 브랜드 첫 픽업 ‘더 기아 타스만(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전용 위장막 모델을 공개했다.

기아는 ‘미처 가보지 못한 길(The Paths Never Taken)’을 주제로 호주 뉴질랜드의 유명 아티스트 리처드 보이드 던롭(Richard Boyd-Dunlop)과 협업해 타스만의 위장막 디자인을 개발했다.

위장막 디자인의 핵심 주제인 ‘미처 가보지 못한 길’은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모험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타스만



의 모험 정신을 나타내며, 미지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인생의 가장 대담한 도전들을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위장막은 호주 풍경의 야생적인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모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광과 바다 간의 조화를 중심으로 호주의 자연을 추상화한 유기적이면서도 대담한 패턴이 적용됐다.

기아는 이날 위장막 디자인 개발기를 담은 아티스트 인터뷰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기아는 중형 픽업 타스만을 2025년부터 국내, 호주, 아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해 고객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활방식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타스만의 차명은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영감의 섬’ 타스마니아(Tasmania)와 타스만 해협에서 유래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28일까지 ‘닥스 브랜드 대전’ 진행

광주신세계는 연중 단 한 번 만나 볼 수 있는 ‘닥스(DAKS) 브랜드 대전’을 진행한다.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리며 닥스키즈, 셔츠, 구두, 핸드백부터 닥스홈 제품까지 닥스의 모든 것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인다.

닥스는 130년 전통의 영국 캐주얼 브랜드로 고유 하우스 체크무늬가 유명하다. 특히 영국 왕실 보증인 ‘Loyal Warrant’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은 브랜드다.

아이들에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물할 수 있는 닥스 키즈의 경우 최대 60% 할인 판매하며 올해 신상품인 24SS 상품에 대해 20~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브랜드 데이 10%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클래식하면서 우아한 닥스 숙녀에서는 온라인 기획상품을 선보이며, 닥스 셔츠는 균일가 기획상품 판매한다. 닥스 구두의 경우 브랜드 데이 기간 20% 할인 혜택과 균일가 상품으로 10만원 초반대에 선보이며 닥스 핸드백도 20~30% 할인 해



광주신세계가 28일까지 ‘닥스 브랜드 대전’을 진행한다. 사진은 닥스의 시그니처 체크무늬 양산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닥스홈 제품은 30만·60만·100만원 구매 시 10% 금액 할인과 올해 신상품을 50% 이상 할인가에 선보인다.

세련된 프린트가 돋보이며 일상에서 포

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닥스 양산과 닥스만의 컬러조합으로 재탄생한 트윌리방도 스카프는 20% 할인하며 품목에 따라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박소영 기자